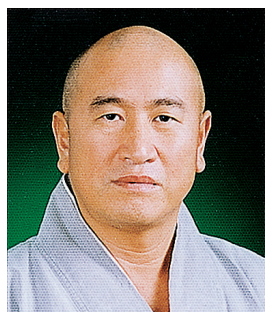


## 신년사

# 공감과 배려의 정신으로 더 좋은 공동체 지향



종 상  
(청계사 회주)

‘너’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너’를 봐  
불확실성으로 여는 편리한 시대 ‘상호의존’ 추구

### 2021년 신축년 온고지신의 해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희망찬 신축(辛丑)년 새해가 되어 지구촌이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2021년 새해에도 온 나라는 여전히 코로나19에 갇혀 두려움과 불황 속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바람으로 부대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앞 갈림길에 서 있다. 언제든 변화는 기존 틀을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하기에 불균형한 상태다. 비록 우리 주위의 몇몇은 새로운 변화를 재빠르게 받아들여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은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힘겨워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도 받을 터이고, 잃어버린 직장을 다시 구하느라 힘겨워할 것이다. 어려운 현실과 불확실

의 2021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조상이 살아온 공감과 배려의 정신으로 온고지신하는 것이다.

### 조상이 살아온 ‘정신’

불교 유교 도교의 3대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전통사상에서 다른 사람, 나아가 사회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공통적인 핵심사상으로 담겼다. ‘나’로부터 진정한 공감과 배려를 회복함으로써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사상이 지향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 곳곳에서 이러한 공감과 배려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기(緣起) 구도 속에 놓여있다고 가르쳤다. 가령 함께 서 있는 세 개의 나뭇가지에서 어느 하나만 빼내도 세워져있던 그 형상은 없어지고 나뭇가지들이 모두 쓰러지고 마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서로 의존한 채 그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 개의 나뭇가지처럼 세상 존재들은 모두 일시적인 조합이며 언제든 변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고정되어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웠다. 모든 존재는 ‘너’ ‘나’ 할 것 없이 같은 처지이고, ‘너’를 통해서 ‘나’를 보며 ‘나’를 통해서 ‘너’를 볼 수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는 ‘나’를 위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것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주어 기쁨을 나누고(자, 慈) 고통을 털어주는 (비, 悲) 것이 모두를 구제하는 길이다.

불교의 자비(慈悲)는 공감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자들의 의존적 상태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근원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실천 법이 되는 것이다.

### 타고난 공감능력

유교에서는 인간의 공감능력과 그에 따른 배려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여겼다. 타고난 공감 능력과 배려정신은 바로 인(仁)을 말한다. 맹자는 이를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통해 설명한다. 만약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우물에 막 빠지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이 순수한 마음이 측은지심이고 이것이 곧 우리 마음속에 공감과 배려가 타고난 것이라는 증거라고 하였다.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교사상의 바탕이 되는 「노자」와 「장자」에는 우주의 원리인 대도(大道)는 만물을 낳고 길러주지만 만물 앞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고 역지로 끌고 가지 않으며 만물이 저대로 자연스럽게 이루도록 한다고 가르친다. 최상의 도를 닦은 최상의 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절로 다 이루게 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다.

또한 모든 만물의 가치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지니는 것은 어리석은 처사이다.

특히 「장자」의 우화에는 장애가 있는 도인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타자를 공감하고 배려하되 배려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공을 자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사회에 대한 공감과 배려

부처님은 「불설십이두타경」에서 “음식을 먹고 자 할 때는 ‘मुख에 8만의 호충(戶蟲)이 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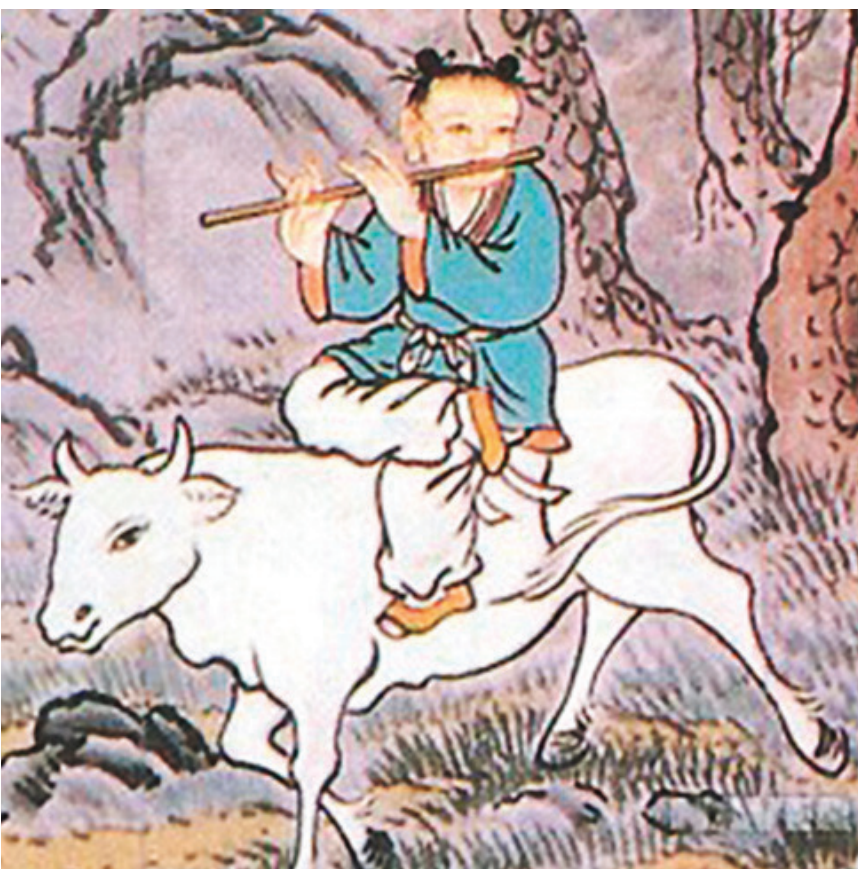
호충이 음식을 먹어서 모두 다 편안하게 살아간다. 내가 지금은 음식으로 이 모든 호충에게 보시하지만 깨달음을 얻어서는 올바른 법으로 보시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에서 8만이 대단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고, 호충이 박테리아와 같은 단세포 생물을 지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사 행위가 곧 내 안의 불성에 올리는 청정한 시주인 동시에 내 몸 안의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시하는 일이다. 식사를 부처님에게 공물을 올린다는 의미를 지닌 ‘공양(供養)’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주 최부자집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3대가 부자가 없다고들 하지만, 최부자집은 무려 9대 500여 년을 넘게 만석꾼의 지위를 유지하고 존경받는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최부자집의 가훈을 보면 이해하게 된다.

“벼슬길에 나아가되 남의 눈발을 매입하지 마라/며느리들은 시집은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이웃에는 아낌없이 베풀면서도 정작 식구들에게는 검소한 생활과 절제를 가르치는 가훈이다.



인간의 진면목 불성을 소에 비유하고 소의 자취를 찾아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꿰뚫어 보고 수행을 통해 길들이는 심우도.

## 생활의 지혜

### 이야기 백유경

#### 65 말로만 배를 잘 운전하는 사람

#### 아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오만과 허위의 함정

○……어떤 일이든 해결 못할 것이 없다는 듯 나서는 사람이 있다. 과거에 남이 한 일은 다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게 일쑤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수도무다. 남의 일에는 감 나라 배 나라 혼수를 두지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 잘난 척 어떤 단체를 맡았다가 망신만 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남이 이룩한 업적은 무엇이든 깎아내

엿날 어떤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보물을 캐러 바다로 갔다. 만일 바다에 들어가 물이 돌거나 굽이치거나 거센 곳에서는 어떻게 배를 잡고 어떻게 바로 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신 있는 장자의 아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바다에 들어가는 방법을 나는 다 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믿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이 병으로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장자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일을 맡게 되었다. 물이 굽이쳐 돌며 급히 흐르는 곳에 배가 이르렀을 때 그는 외쳤다. “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배는 빙빙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기 전에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예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참선하는 법이나 승경을 세는 법이나 또는 부정관(不淨觀)을 조금 익히 비록 그 문자는 외우지만 이치나 갖가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잘 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망령되어 선정의 법을 가르치니 앞의 사람을 미혹케 하고 어지럽혀 마음을 잃게 한다. 또한 법에 대한 해석이 뒤섞여 일생 동안 아무 소득도 없게 하니, 그것은 저 어리석은 사람이 남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과 같다.

리고 자신이 이룩한 작은 공은 크게 내세운다. 자기 생각은 다 옳고 남의 생각은 다 그르다 한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다.

○……선종에서는 말만 앞세우는 ‘구두선(口頭禪)’을 극력 경계한다.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일수록 오만과 허위의 함정에 빠져 한 가지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경륜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탐내면 자기는 물론이고 남까지 망하게 할 뿐이다.

## 법보시를 받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 \*법 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100부 박유진 300부
  - ♣ 인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300부 김희용 100부
  - ♣ 수원구치소 김형수 100부, 김영현 100부 김민준 10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중순 100부, 김대희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100부, 이근혁 100부 이고은 100부, 윤석호 100부
  - ♣ 여주교도소 손영호 50부, 김진식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주 대궁 종상  
주지 성행

총무 : 성전 재무 : 명원 포교사 : 명혜 노전 : 정타 부전 : 원당 원덕

- ▶충신도회 상락회 지장회 관음회 합장단 출판부 육법회 삼보회 금강회 승무단
- ▶불기관리부 다리나히 문수회 보현회 마야회 청다회 목어본팀 목어회1팀 목어회2팀
- ▶목어회3팀 우담회 보리수회 장엄등연구회 영불봉사단 마지공양단 108선원순례단
-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천진불회 청년회 불교대학교학처
- ▶청계불교대학 총동문회

- ▶대궁선원
- ▶부경대경인동문회
- ▶서울구치소 불심회
- ▶의왕시 공무원불자회
- ▶성남시 공무원불자회
- ▶의왕경찰서 불자회
- ▶분당경찰서 불자회
- ▶마사회 법우회
- ▶청계사 종무원
- ▶녹향원 임직원
- ▶희망나래종합복지관 임직원
- ▶청계주간보호시설임직원
- ▶대궁어린이집 임직원
- ▶하동청소년수련원 임직원
- ▶카루나봉사단

### \* 부설 운영기관

- ▶녹향원
- ▶희망나래복지관
- ▶청계주간보호시설
- ▶대궁어린이집



### 선요

중국의 규봉스님이 불교 교리를 개론한 <선원제전집 도서(禪源諸詮集都序)>는 말그대로 '선원제전집'의 서문으로 줄여서 <도서>라 불리우며 강원에서 사집과의 학인스님들이 배우는 과목이다. 1200여년전 선종과 교종으로 분열되던 중국 당나라 때 규봉스님이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하면서 이책을 통해 선과 교는 서로 수행을 도와 성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주>

## 跋文

겨우 이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곧 이는 집에 이른 소식이다. 결정코 갈 길이 머지않았으니 잡아 얹고 당겨 매서 단지 때를 기다려라. 또한 도리어 이러한 말을 보고 한 생각으로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 구하지 말라. 또 도리어 마음을 가져서 기다리지도 말고 또한 도리어 한 생각을 놓지도 말고 또한 도리어 한 생각을 버리지도 말며, 바로 모름지기 굳게 바른 생각을 영켜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으라. 이때를 당하면 八만 四천 마군이 너의 大根門頭에 있어서 있는바 일체 기이하고 수승한 선악의 경험한 일들을 기다려서 네 마음을 따라 베우고 네 마음을 따라 나며 네 마음을 따라 구하고 네 마음을 따라 나타나서 무엇 하고 저 하는 바 있음을 쫓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네가 만약 티끌만람이라도 차별심을 일으키고 티끌만람이라도 망상하는 생각을 내면 곧 문즉 저(魔)의 테두리 가운데 떨어져 곧 저가

리어 부처님의 혜명을 잇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일 속세에 재배하지 안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지혜가 구족함을 얻었을 것인가. 이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나 오늘 산승은 도리어 한 개 범부를 단련하여 성인을 이루는 약이 있으니 재배를 가지하지 않는 종자다. 말하자면 말이 번잡하므로 간략히 한 偈를 들으니 종자의 인을 밝히고자 하면 열심히 上大人을 읽으라. 만일 가히 禮를 아는 데 이르면 눈먼 거북과 절름발이 자라와 친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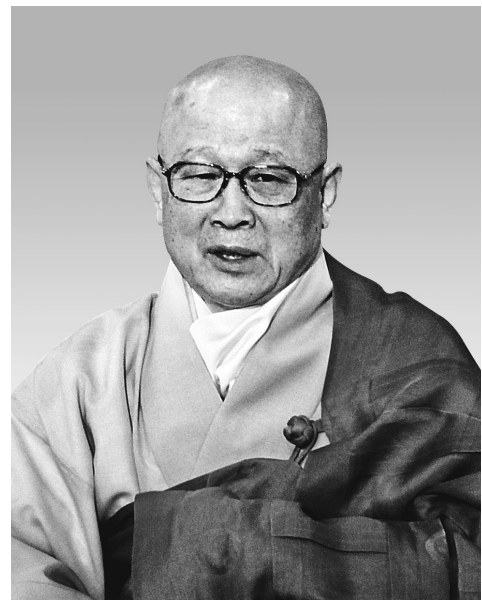
結制대 大衆을 教宗하다. (結制宗衆)  
(결제 때 철저히 하여 銀山鐵壁을 이루어 만 길 함정에 빠진 사람이 생각으로 逃코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하고 ...을 보았다.)  
긴 기간은 九旬(九十일)이고 짧은 기간은 七日이다. 거치는 생각 가운데 가는(細) 생각이

### 마음을 가져서 기다리지 말고 한 생각을 놓지도 버리지도 말며 굳게 바른 생각을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아라

作主함을 잃고 곧 저의 지휘를 들어 문득 입으로 마군이 말을 하고 마음으로 마군의 행을 하여 도리어 남의 그릇을 비방하고 스스로 眞道라 예찬하니 반야의 바른 인이 이로조차 氷泮하며, 菩提種子가 다시 싹이 나지 않아 劫劫生生에 항상 반려가 될 것이다. 마땅히 이 모든 마군의 경계가 다 自心으로 초차 일어나 것이며, 자신에게 난 것인 줄 알라. 마음이 만일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찌할 것인가. 天台가 이르되 「너의 伎倆은 다함이 있거니와 내가 캐지 않는 것은 다함이 없다.」하니 진실하다. 이 말이야, 다만 중요로 일체 처에 놓아 하여금 차갑기가 얼음같이 하며 편한 하기가 평탄하게 하고 순전히 맑아 닳을 끊어지게 하며 一念萬年 하게 하되 한낱 시체를 지키는 鬼子와 같이 하라. 지켜 오고 지켜지되 의심문치가 터져 한번소리가 울리면 하늘을 놀래고 땅을 움직이게 할 것이니 힘쓰고 힘쓰라.

있고 가는 생각 가운데 세밀한(密) 생각이 있다. 세밀한 생각이 간단이 없이어 조그마한 티끌도 끼우지(立) 말라. 바로 이러한 때가 銀山鐵壁(굳고 험하여 뚫을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면 문이 없고 물러서면 실족한다.

저 만 길이나 되는 깊은 구렁에 떨어져 四면이 懸崖 荆棘이라도 맹렬한 영웅은 바로 몸을 뒤쳐 뛰어나기를 요하는 것 같다. 만일 도리어 한 생각이라도 망설이면 부처님도 또한 너를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것이 맨 위에 있는 火門이다. 널리 대중에게 청하노니 힘쓰라. 산승이 비록 그름을 막아 탁월한 예에 지나지 않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식을 통한다.



덕민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

## 이 시대 우리들의 '화두' 회주 종상스님의 '선문염송' 강설

### 제 61강: 丹霞燒木佛과 孝翱의 悟道(4) (단하소목불과 효고의 오도)

다음 이야기는 不肯定(불공정)의 화두이다.

『藥山(약산)이 道吾(도오)와 雪岩(설암)과 더불어 遊山(유산)할 때에 푸른 나무와 마른나무 2구루를 보고서 약산이 물었다.

「마른나무가 옳으나, 푸른 나무가 옳으냐?」

雪岩(설암)이 「푸른 나무가 옳다」고 하니 藥山(약산)이 「그렇다면 환하게 一切處(일절처)가 光明燦爛(광명찬란)하겠구나」하였다.

道悟(도오)가 「마른나무가 옳다」하자, 藥山(약산)이 「그렇다면 환하게 一切處(일절처)가 깨끗하게 마르겠구나」하였다.

그 다음에 高沙彌(고사미)가 이르니, (먼저와 같이) 藥山(약산)이 또 물었다. 高(고)사미가 마른 것은 저대로 말랐고, 푸른 것은 저대로 푸르렀다」하니 藥山(약산)이 「雪岩(설암)과 道吾(도오)를 돌아보면서,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하였다.」

高(고)사미의 대답은 的中(적중)하고, 雪岩(설암)과 道吾(도오)의 對答(대답)은 的中(적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藥山(약산)과 高沙彌(고사미)와의 대화이다.

『藥山(약산)화상이 어느 날 高沙彌(고사미)가 하직하고 떠나려 할 때에 물었다.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江陵(강릉)으로 戒(계)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戒(계)는 받아서 무엇 하겠고?」「생사를 면하고자 합니다.」「어느 사람은 戒(계)를 받지 아니하

고, 생사를 면하려고도 아니하니, 너는 알겠느냐?」「그렇다면 부처님의 戒(계)도 쓸데없습니다!」

「뻬(뿔:꾸짖음)! 이 細說(세설:잔소리)잡하는 사미가 오히려 입술에 걸렸구나!」하였다.」 제 말길에 제가 차였다고. 제 스스로 도리어 공중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뜻이다.

에게 말하였다. 고향에는 父母(부모)가 이미 없는데,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藥山(약산)은 빨리 돌아가 보라고 권하였다. 그동안 먹지 않은 양식을 그대로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路賚(노자)를 염려하는 藥山(약산)의 人性(인성)은 자별하기도 하였다. 그 反面(반면) 朝夕(조식)으로 上堂說法(상당설법)을 할때에 쌀한톨 먹지 아니한 法身(법신)도 있다는 것을 藥山(약산)은 보여주기도 하였다.

故鄉(고향)! 衲僧(납승)의 故鄉(고향)에는 路賚(노자)가 필요하였다. 그 藥山(약산)의 上堂說法(상당설법)

「아침하지 않을 때가 어때합니까?」「나라와 바꾸지 못하느니라!」하였다.」

至寶(지보:지극히 귀중한 보물)는 至寶(지보)다! 나라와 바꾸지도 못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 야말로 無價寶(무가보)가 아닌가.

다음 이야기는 折脚鐵子話(절각당자화)이다.

『藥山(약산)화상이 雪岩(설암)에게 말하였다.

「沙彌(사미)를 좀 불러 달라.」「사미는 불러서 무얼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진 茶(다)단지가 있으니, 이것을 우두 옮기려고 한다!」

「그러면 스님도 한 손을 내어 밀어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다리 부러진 茶(다)단지! 이거 무엇인가. 왜 藥山(약산)은 손수 우두어 옮기지 아니하고서 사미를 부르라 하였을까.

다음 이야기는 藥山(약산)화상과 學人(학인)과의 대화이다.

『藥山(약산)화상에게 어느 學人(학인)이 물었다.

「제가 疑心(의심)이 있사오니, 願(원)컨대 스님께서 일러주소서.」

「저녁에 오면 일러주겠다.」

晩參時(만참시)에 大衆(대중)이 雲集(운집)하자 약산이 물었다.

「오늘 疑心(의심)을 해결하려고 한 중이 어디 있느냐?」

僧(승)이 문득 나오는지라, 藥山(약산)이 法座(법좌)에서 내려와서 잡아 앉히되, 「대중아! 이 중이 의심이 있도다.」하면서 문득 한 망치로 치고 문득 方丈(방丈)으로 돌아갔다.」

한 망치를 먹은 僧(승)은 과연 疑心(의심)을 해결하였을까? 아니 雪上加霜(설상가상)이다. 冷煖(냉난)을 스스로 알 따름이다.

### 일절처(一切處)가 광명 찬란하고 저대로 말랐나 하니 '옳지 못하고 옳지 못하다' 불공정의 화두

藥山(약산)의 이 한마디 오히려 입술에 걸렸다!의 法語(법어)는 사미를 일으킨 (격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이야기는 故鄉(고향)의 소식이 다.

『藥山(약산)화상에게 어느 衲僧(납승)이 물었다.

「제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오니, 어느 때가 좋겠습니까?」

「그대의 부모가 全身(전신)이 적어서 가시덤불속에 누웠는데, 그대는 무엇 하러 가는고?」「그러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빨리 돌아가 보아라! 내가 만일 귀향하면 먹지 아니한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네, 원합니다. 주소서!」

「나는 朝夕(조식)으로 上堂(상당)할 때에 쌀 한 톨도 입에 넣지 않노라!」하였다.」

너는 지금 父母(부모)를 뵈우려 故鄉(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너의 부모는 벌써 고향으로 돌아가고 없다. (죽었다는 뜻)고, 藥山(약산)은 衲僧(납승)

에는 쌀 한 톨도 필요 없다.다음 이야기는 藥山(약산)과 圓頭(원두)와의 대화이다.

『藥山(약산)화상이 菜園(채원:채소밭)에 나가서 圓頭(원두)가 菜蔬(채소)를 가꾸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菜蔬(채소)는 내가 가꾸는 것을 마치 아니할지니, 다만 生(생)뿌리를 뽑지 마라!」하니, 圓頭(원두)가 말하였다.

「만일 生(생)뿌리를 뽑지 아니하면 대중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너도 입이 있구나!」하였다.」

사자굴 가운데에는 사자새끼가 있다. 藥山(약산)의 총립에는 圓頭(원두)도 말문이 열렸구나. 지리산 까마귀도 「大機(대기)! 大用(대용)!」한다고 하였다.

다음 이야기는 無價寶話(무가보화)이다.

『藥山(약산)화상에서 어떤 衲僧(납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道(도)에서도 至寶(지보:지극히 귀중한 보물)입니까?」「아침하지 마라!」

### 뉴스&뉴스

#### 국가재난 이겨내자. 동지 발원



지난 12월 21일 청계사에서는 코로나 정부 방침을 철저히 지키며 주지 성행스님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지 법회를 봉행했다. 팔죽을 먹으며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날인 만큼 국가 재난을 슬기롭게 이겨 내자는 발원을 부처님께 올렸다. 주지 성행스님은 “동지를 작은설이라 한다”며 “새해 인사 미리 올리면서 아쉽지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청계사에서는 사찰 달력을 나누어 주고 팔죽을 부처님께 올리며 대중과 나눠 먹는 풍습을 이어온 만큼 용기에 포장해서 사찰을 찾은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대중공양했다. <글 주향진성>

#### 마지단 점안식 봉행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설법전에서 부처님 전에 청수와 공양물을 올릴 마지 공양단의 '마지단' 부처님

점안식이 있었다. 마지 공양단(회향 유자연)은 부처님 전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공양물을 잘 받들어 정성스럽게 올리기를 발원했다. <글 심대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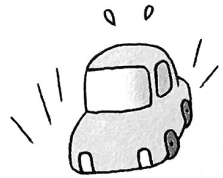
#### 소원지 소각

지난 12월 31일 소원지 소각이 있었다. 경자년 한 해 동안 열반상 앞에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발원하면서 쓴 소원지를 코로나19로 인해 신도회 임원들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어뻘하게 소각했다. <글 서용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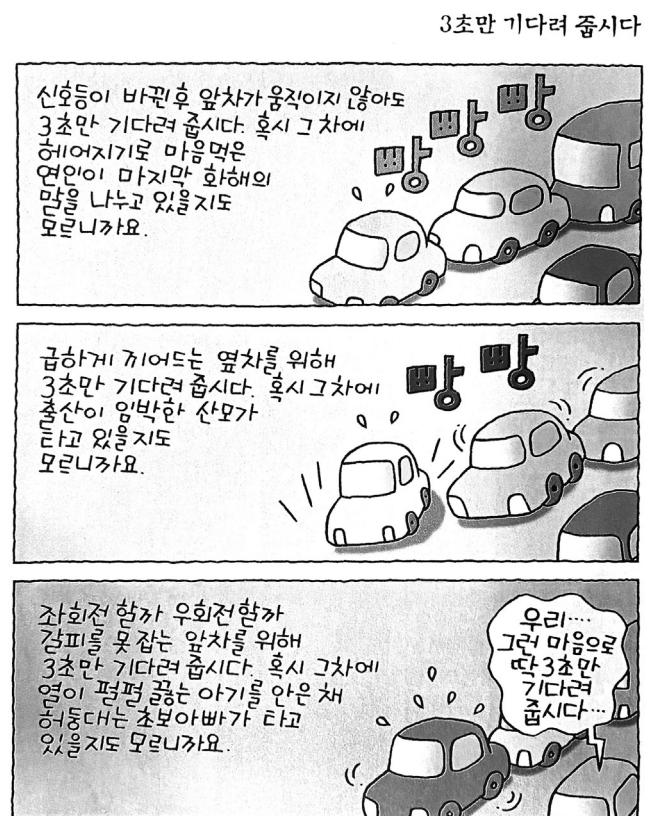


이익을 다투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앞서지 말고  
덕을 닦는 일은 다름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말 것.  
받아서 누림은 제 분수를 넘지 말고  
마음을 수양하는 일은 제 분수 안으로 줄이지 말 것.

— 채근담



마음밭에 무얼 심지? 중에서





# 2021년 신축년 소의 해

## 불교속에서 본 소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신축년에서의 '신'은 흰색을 의미하며, 그래서 올해는 '하얀 소의 해'다. 불교에서 '하얀 소'는 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축년은 불자들에게 자신의 불성을 되돌아보아야 할 해라고 할 수 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힘든 농사일의 주역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유일한 운송·이동수단이기도 했으며, 재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뛰어났기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때문에 소는 예로부터 부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존재로도 여겨져 왔다. '꿈에 황소가 집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설날 새벽 송아지 우는 소리는 풍년을 징조'라는 속설도 이런 관점에서 유래한 것이다.

인 불성을 소에 비유하고,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10단계 깨달음의 과정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불성을 찾아나서는 첫 단계인 심우에 서부터 본성의 자취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견적, 견우, 득우, 목우의 과정을 거쳐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우귀가의 그림이 있다.

심우도는 선재동자가 소(자신의 불성)를 찾아나서는 심우(壽牛)로 시작된다. 선재동자는 소의 자취를 찾아 해 먼 끝에 소를 발견하고 고삐를 매 올라타 길들인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깨닫어 보고 수행을 통해 길들이는 다섯 번째 단계 목우(牧牛)다.

선재동자는 이어 소도 사람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임을 깨닫는 인우구망을 거쳐,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

### 인간의 본성, 깨달음 이끄는 신령한 동물 심우도는 인간의 진면목인 불성을 소에 비유

무엇보다 소의 우직하고 성실한 면모는 인간의 계음을 경책하는 방편으로도 활용돼 왔으며,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소가 말이 없어도 열 두 가지 덕이 있다'는 말은 우리조상들이 소의 이러한 성품을 높이 샀던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이 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온 불교는 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불교에서 소는 인간의 본성을 뜻한다. 초기경전인 <중일아함경>(목우품)에 이와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한다. 부처님은 소치는 사람이 소를 잘 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열한가지 법에 빗대어, 수행자가 깨달음을 위해 성취해야 할 도리를 설하셨다. 소를 치는 것과 같이 불성을 닦고 수양하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사찰의 법당 벽화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심우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우도는 인간의 진면목

광이에 큰 포대를 메고 육도중생의 길(임전수수)로 들어선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행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중생구제에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이전 이름인 '고타마 싯타라타'에서 성씨인 '고타마'는 '매우 좋은 소' '귀족한 소'를 뜻하고, 보조 국사 지눌스님의 호는 '소치는 사람'을 뜻하는 목우자(牧牛子), 경허 선사의 호가 '깨어있는 소'를 뜻하는 성우(惺牛)인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만해 한운은 스님은 자신이 머물렀던 집을 '소를 찾는 곳'이라는 뜻의 심우장(壽牛莊)이라 이름 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소는 오랜 세월 동안 고승과 수행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정리 여여광>

### 소해의 불교계 소사

- △617년 신라 원효대사 탄생
- △665년 신라 고승 해통, 당에서 구법하고 귀국
- △689년 승려 전갈 등 50여명, 일본에 건너감.
- △809년 해안사(海眼寺, 조선 인조 때 은해사라 개칭)를 창건, 원찰로 삼음.
- △929년 천축 삼장법사 마후라 내왕
- △953년 황룡사탑 비락 맞고 소실
- △989년 여가 공사??한인경 등과 함께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귀국
- △1049년 혜소 정현, 왕사(王師)에 임명됨
- △1109년 예종(睿宗) 2월 29일 및 9월 24일에 각각 회경전에서 백좌회(百座會)를 개설, 중외(中外)에서 승려 3만을 공양
- △1397년 9월 흥천사 준공, 선종의 수찰로 삼음, 11월 일본 구주탐제원도덕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청
- △1409년 일본 승려 주호, 대장경 요청
- △1469년 경국대전 초안 완성, 양주 봉선사 창건, 오대산 상원사를 세조 원찰로 삼음
- △1553년 1월 양중 시경승 2500여명에게 도첩을 줌
- △1913년 2월 20일 탄허스님 탄생, 5월 25일 만해 스님 '조선불교유신론' 간행
- △1925년 1월 2일 조선불교청년회 창립, 9월 1일 총독부, 해인사대장경 인출시작
- △1949년 3월 맥아더사령관, 일제 침탈 문화재 반환
- △1961년 3월 대법원, 비구승단 인정, 5월22일 윤허스님 불교사전 간행
-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승니법 제정 공포
- 8월 경주 석굴암 복원공사 착공
- 11월 28~29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정화촉진위원회 구성
- △1973년 3월 24일 변호사 용태영, 서울고등법원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 청구소송 제기
- △1985년 3월 30일 대한불교진흥원, '통일법요집' 제1차 편찬위원회 개최
- 8월 29일 전통건조물보존법 시행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11753호).
- 9월 5일 전국비구니회 창립(회장; 해초스님)
- △1997년 10월 25일 신홍사 세계최대규모 청동좌불 정안식 봉행
- △2009년 10월 12일 낙산사 복원공사 완공

#### ■ 신축년에 나는

### 신수심법(身受心法)을 기본 법경으로 수행

신축년 흰 소띠 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73세가 된 저의 마음은 어려웠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불교를 믿으셨으며 그것을 보고 자란 저 또한 불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초교리와 절 수행, 참선 등을 통해 마음과 정신단련도 하고 힘을 얻고자하며 믿음 또 그 믿음이 무엇일까 마음에 다짐을 하며 '불교'를 믿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청계사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벌써 40여년이며 신도회회장과 육법회회장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상조회인 상락회장의 소임까지 맡고 있다.

'소갈이 일하고 쥐갈이 먹어라'라는 소와 관련된 속담이 있듯이 믿는다고 무엇이 다 이루어 진다면 자연의 법칙에 공경 공평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떤 행위를 해야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들 말합니다.

###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 버리고 마음 행기는 해가 되길

저는 "몸, 느낌, 마음, 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주시와 지속적인 관찰하리"라는 신수심법(身受心法)을 기본 법경으로 수행 해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새해를 맞아 한번 더 마음을 강화하는 불교 수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고 불안도 하지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물려옵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는 수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네요.

신축년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마음 행기는 해로 보내길 바라봅니다.

내 삶의 스승이신 스님들과 모든 신도님들 흰 소의 상징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이 되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 성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서지비화 <상락회장>

### '네 기도는 네가 해야 한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나의 생각을 발표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속스럽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와 통화 내용입니다.  
아들을 위해 1박2일 기도하시고 오셨단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는 안 해주셨냐고 서운해 하는 제게 '네 기도는 네가 해야 한다'라는 엄마의 말씀을 들었지요.  
절하는 법도 기도하는 법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지만 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경을 외우고 반야심경, 다라니를 외우며 책으로 절하는 법을 혼자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초하루와 보름마다 새벽에 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극락보전과 전각을 돌며 삼배만 올리고 집에 돌아와도 그날 하루는 뿌듯함이 가득한 하루였지요.  
쉽 없이 지내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새벽마다 부처님께 말씀드렸던 일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 부처님께 삼배만 올리고와도 뿌듯함이 가득한 하루

되였지요.  
'아이린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환희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무렵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불교대학을 접하게 되었고, 스님의 첫 질문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이었습니다.  
초삼자인 제가 배우기엔 너무 깊고 커서 주저하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에,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들어옴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경전 공부는 두 시간이라는 시간이 왜 그리도 빠르지 아쉬움을 갖고 내려오던 제가 봉사할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나 힘들도 있었지만 보람이 더 큰 봉사였습니다.  
지난 경자년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춰지만 신축년인 올해 또 다시 시작될 일상을 준비하며 평범했던 지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되새기면서 을 조려봅니다.  
"옴 따래 뚜따래 뚜레 소하"



연문심 <불교대학총무>

### 내 가까이 항상 부처님이 함께 계셔

2021년 40대의 마지막 소띠 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 지나온 날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20여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던 2020년은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 속에 내 맘처럼 되는 일 없이 힘겨운 한 해였고 결혼 직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막막한 미래에 답답하기만 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부처님을 가까이 하시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에게 불교, 부처님이란,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가

### 부처님과 함께 소중한 일상 보내길

뛰어놀았던 절에 대한 기억뿐이지만, 어른이 되어 가끔씩 절에 갔을 때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자란 지금의 반려자를 만나게 된 것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들과 함께 알콩 달콩 재미나게 결혼생활을 하는 것도 내 가까이 항상 부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로운 신축년에는 큰 바람 없이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가족, 친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무탈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조금 더 발전되었으면 한다.

부처님과 함께 안정된 마음으로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낼 수 있길 바래본다.



김재영 <고양시 일산서구>

##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총장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청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청계사)

#### ※ 차량안내

미기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이 세상 끝까지 간다. 녹향원은 의왕시 청계동 43번지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로 청계사에 운영·지원하는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사랑이야기

‘희망에너지’ 주고받으며

귀한 인연으로 꼭 필요한 「따뜻한 집」으로 가꾸어

지난 한 해 변화를 향하여 힘차게 시작하였으나, 지금껏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코로나19를 맞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멈추고, 평범한 일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함께 하는 가치를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2020년 우리들의 사랑이야기 '꿈을 향한 희망의 날갯짓' 행사 모습입니다.

드림하우스 건축을 시작으로 협소한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은 모두에게 합리적인 시간이었으나 우리들은 '희망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하며 새집으로 이사하였고,

코로나 감염병과 싸우면서도 불안감은 있었지만, 지금은 확보된 공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넓은 공간, 쾌적한 환경, 나의 집을 꿈꾸듯 거주가족들 역시 얼마나 간절히 원하였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거주가족들 모습이 정말 행복 해 보입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고마운 많은 분들의 배려를 잘 새기며 또 다른 귀한 인연으로 나누어 나가겠습니다. <원장 김나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월이월금. Rows include 지정, 비지정, 기타, and 합계.

녹향원 후원자 명단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

- 직접후원: 후원금:10,000원-가진, 김중호, 정계영, 정도화, 진경, 최명자... 후원금:30,000원-김영수, 박성준, 배용태, 신영옥... 후원금:40,000원-곽경희, 권정기, 김나현, 김대희, 김재태... 후원금:50,000원-이광수... 후원금:60,000원-구은정, 김민경, 송생금, 윤채규, 이영순, 정희운... 후원금:70,000원-경기도장애인시설협회... 후원금:80,000원-서효정... 후원금:100,000원-김양수, 김중철, 안혜경, 관용성, 이종우, 진항기, 의왕시복지정책과... 후원금:150,000원-추준호... 후원금:200,000원-메트로병원장재식장, ㈜범양정책, 유병주... 후원금:300,000원-경기도의사회, 김진주, 노정희... 후원금:500,000원-㈜천은엔지니어링, ㈜유엔굿라이프... 후원금:1,000,000원-문찬균, 박대수, 신협중앙회, 허정옥... 후원금:2,000,000원-KB과장동지회, 경기도공동모금회

이달의 후원금

금 11,355,570

후원금을 보내주시려면

국민은행: 870501-00-008169 (예금주-녹향원) 녹향원이 법인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후원을 계획하시는 후원자분들은 위의 후원금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후원자님들은 기존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CMS 자동이체는 녹향원을 방문하시거나 매달 초하루법회에서 후원모집 부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후원가족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1회 학습지도, 청소, 목욕봉사를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녹향원: 031)426-6698 청계사: 031)426-2348, 2221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2월 봉사자 명단

봉사활동 없음



후원자님! 소중한 인연과 덕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예금계좌: 국민 870501-00-008169 녹향원

지혜의 등불

신축년 소망

세상의 빛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빛이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도 느낌이 없을 때도 아니 존재마저도 보이지 않을 때도 이런 것이 무슨 의미의 존재 이겠냐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밝은 빛도 어두운 빛도 아무런 의미도 존재도 없는 빛이라도 그 모습이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것 인가보다.



성행스님 <청계사 주지 녹향원 이사장>

도 보이지 않은 다른 물질도 모두가 하나이며 한 뿌리인데 그 무엇이 두려울까? (天地如同根)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 스스로를 내려놓자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에 기대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큰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다 보면 밝은 빛이 보일 것이다. 수행자의 사표가 된

기다리며, 인내하며, 스스로 내려놓고 미래 위해 준비 모든 질병 고통 사라지는 하얀세계 불국정도 믿음, 수행, 부처님의 가피로 행복한 세상 빛 나타내길

이런들 어떻게 저런들 어떠냐. 그저 행복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세상의 빛이 하루빨리 나타나길 바란다. 모두가 웃으면서 어울리며 온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밥상 앞에 모이기를 바란다. 웃음이야 하면서 수다 떨고 강강술래 하며 짙진 밥기도 하고 싶어진다. 지역축제가 그리워지고 친구들끼리 어울리며 군중 속으로 묻히고 싶어진 다. 시장 통에서 주전부리 먹으면서 흥정도 하고 싶고 골라골라 무조건 떨이라고 하는 큰소리로 듣고 싶어진다. 그런 모두의 얼굴도 그리워진다. 마스크에 가려진 모습이 측은해 보이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좋은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진실의 문이 닫혀 버렸다. 세상의 밝은 빛이 그리워진다. 나도 너도 그리고 모두 자연도 형상

심우도의 신성한 수행상 소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 가보게 된 하얀 소의 모습 그 자태가 하늘과 땅을 뛰어넘는 위대한 수행자의 모습인가. 찾고 찾아 길 위의 흰 소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른 새벽 첫날 발걸음을 내딛었는가? 삼천대천세계 허공 가득 하얀 눈이 흠날리니 여기가 수행처요, 보림처가 아닌가?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하얀 세계가 불국정도일 것이다. 우리의 행복이 스며들듯이 한해가 시작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미래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과 수행과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에... 신축년 흰 소피해에 가족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생활의 지혜

- 케이크가 남아있어요: 남은 케이크는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2-3일 뒤까지 냉장요, 먹기 한 시간 전에 만 꺼내어 두시면 맛 그대로~
- 목은살이 있는데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윤기가 자르르 합니다.
- 달걀지단이 자주 찢어져요? 달걀을 풀 때 녹말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얇게 부쳐지고 찢어지지 않아요. <정리 황청량님>

12월 운명(運)은 있지만 정해진 운명(運命)은 없습니다. 운은 노력한 결과입니다. 쥐띠, 호랑이띠, 용띠, 말띠, 원숭이띠, 개띠, 소띠, 토끼띠, 뱀띠, 양띠, 닭띠, 돼지띠. Each zodiac sign has a short fortune prediction.

이달의 운명 (運命)은... <정리 심대덕님>